

외화거래 손익 정보와 전달방식에 따른 가치관련성

전성일(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이기세(전남대학교 회계학과 박사수료)

<개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글로벌화로 외환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외환거래가 기업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99년 외환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와 같이 환율이 급격히 변동될 경우 기업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 회계기준상 외화거래로 발생하는 실현 및 미실현 손익이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거래가 완료되어 발생하는 실현손익과 결산일에 환율변동으로 발생하는 평가손익을 모두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회계기준은 기본적으로 국제회계기준에 부합 하지만 거래가 완료 되었을 때 실제 현금의 유입이 이루어지는 외환차손익과 발생주의 입장에서 기말 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미실현 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은 시장에서의 반응이 차별적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외환거래로 발생하는 실현손익과 미실현 손익간의 가치관련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K-IFRS 도입 이전 외환관련 회계처리 기준에서는 실현손익인 외환차손익과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은 항목을 구별하여 재무제표에 보고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K-IFRS 도입으로 인해 이 두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보고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이러한 통합표시 제도는 기존 세부화된 회계정보 보다는 오히려 정보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이에 따라 K-IFRS 도입으로 인해 외환관련 통합표시제도가 외환거래 정보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첫째,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외환차손익은 서로 다른 주가배수를 보였으면 실현손익인 외환차손익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가치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외환관련 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보고한 집단의 외화차이(외환차손과 환산손익의 합)는 유의한 가치관련성을 보여 통합보고 집단에서 회계 정보손실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두 항목을 구분표시한 집단과 통합 보고 집단 간의 외화거래 정보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회계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전달방식에 따라 회계정보 유용성이 차별적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글 색인어: 외환차손, 외화환산손익, 가치관련성, 회계정보 유용성

I. 서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사업영역 확장 및 수출상품 증가로 인해 외환관련 거래가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환관련 거래는 기업의 경영성과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증권 거래소에 따르면 2014년 상장기업 중 153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환차손익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1천 479억원의 환차손익을 보였으며, 조사대상 기업들 중 환차익이 발생한 기업은 77개로 그 규모가 2천 22억원에 달하였고 76개사는 총 543억원의 환차손을 보였다. 또한 이러한 환차손익에 대비하여 환율변동위험을 관리하였던 62개 기업은 외환거래에서 1천 140억원, 파생상품거래에서 385억원 등 모두 1천 525억원의 외환거래 차익을 냈다(연합뉴스, 2014년 5월 20일자 수정). 또한 이러한 환차익의 위험을 회피하고자 LG전자는 국내 생산지국을 외국으로 일부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는 국내에서 생산하여 수출할 경우 환차익 충격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4년 3분기의 영업외 비용 2500억원 중 대부분이 해외 AR(매출채권)과 해외 AP(매입채무)에 따른 환차익으로 인해 발생되었다(머니투데이, 2014. 10. 29일자 수정).

이러한 외화자산의 회수나 외화부채의 상환시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 현 회계기준에서는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현손익인 외환차손익은 실현주의에 입각하여 실제 현금흐름을 동반할 경우 발생되는 신뢰성 있는 항목이며,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은 발생주의의 입장에서 기말의 환율변동에 따라 평가손익을 나타내는 목적적합성이 있는 항목이다. 이처럼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거래의 완결 여부 및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에 다르기 때문에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 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실현 손익인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간의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앞선 설명대로 두 항목 간 회계이익의 질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두 항목을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였다. 그러나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외화관련 손익에 대해 실현과 평가손익으로 구분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변혜영, 2010). 이러한 규정에 인해 2011년부터 2014년 까지 총 148개 기업들이 외화관련 거래시 발생한 손익에 대해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보고하였다.

외화관련손익을 구분 표시하였을 경우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에 대한 정보를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쉽게 획득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표시의 경우 실현 및 평가 손익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외환거래로 인해 통합 보고된 손익의 수치에서 현금흐름표상 외화환산손익의 수치를 가감하여 외환차손익에 대한 정보를 추정하여 얻을 수 있다. 즉, 외환관련 손익이 통합 보고 되어 있을 경우 정보 이용자들은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추정하여 이 두 항목의 금액을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통합보고 방식은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외화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용이하지 않지만 이러한 통합표시를 허용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하며 세부화된 회계정보 보다

통합된 정보가 오히려 정보제공의 효율성을 높일 수 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IFRS상 외화환산 관련 항목의 통합표시 제도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첫째,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과 실현손익인 외환차손익은 서로 다른 주가배수를 보였으며 거래의 완료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이 더 높은 가치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외환관련 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보고한 집단의 외화차이(외환차손과 환산손익의 합)는 유의한 가치관련성을 보였으며 이들 집단의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 손익의 가치관련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실현손익인 외환차손익만 유의한 가치관련성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두 항목을 구분표시한 집단과 통합보고한 집단 간의 외화거래 정보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외환관련 변수들의 가치관련성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 전달 방식에 따라서도 회계정보의 손실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환관련 손익을 통합표시 하도록 한 현 K-IFRS상 규정은 정보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장에서는 외환관련 회계처리의 변천사와 선행연구를 검토한 다음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3장에서는 연구모형의 설계와 함께 변수들을 정의한다. 4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였고 5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II. 선행연구 검토

2.1 외환거래 관련 회계기준의 변천사

외화자산 및 부채의 환산손익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의 변천사를 살펴보면 먼저, 1996년에 시행된 기업회계기준 제 74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의 평가와 관련하는 발생하는 외화환산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는 미국의 회계기준과 유사하다. 그러나 그해 말 급격한 환율상승으로 인해 장기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한 외화환산이익과 외화환산손실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자본조정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재개정 하였다.

이후 1997년 발생한 외환위기로 인해 환율이 급등하자 정부는 기업들의 자본잠식을 막기 위해 급격한 환율변동으로 발생한 중요한 외화환산이익 및 외화환산손익을 이연자산과 이연부채로 기재할 수 있도록 하여 계상연도부터 최종 회수일 또는 상환일까지 정액법으로 상각 또는 환입할 수 있도록 재개정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은 1998년 말 국제통화기금의 자금 차입에 따른 요구 조건에 의해 1996년 규정으로 다시 환입 되었다(조성표와

박기찬, 2003; 김병호, 2003)

이후 한국회계기준에서는 점차적으로 국제회계기준과 적합성을 갖도록 외화관련 기업회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업회계기준 제 68조와 제 69조를 제정 및 개정하게 되었고 개정된 내용은 기존 규정과 크게 다르지 않는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2008년 환율이 또 다시 급등하자 1997년도 외환위기와 마찬가지로 2009년 회계기준을 재개정 하였으며 개정 내용에는 K-IFRS 도입을 위해 준비단계에 있었던 외화 환산 항목 등 일부가 조기에 도입되었다.

그 후 2011년 K-IFRS가 전면도입에 따라 은행에 대한 예외 인정여부, 기능통화 개념도입 및 변경효과 표시, 해외사업장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 변경 등에 대해 많은 변화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 중 본 연구와 관련된 외화환산 회계처리에 방식을 살펴보면 화폐성 항목은 결산 종료일의 환율로 환산하고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로 환산하며, 화폐성 항목에 대해서는 외화환산시 발생한 환율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처리한다는 기준은 큰 변화가 없었다. 다만 기존 회계기준에서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도록 하였지만 K-IFRS 도입으로 인해 이 두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였다(변혜영,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계기준의 변화가 외화관련 손익의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2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에서는 외화거래로 인해 발생한 외환차손과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연구들과 함께 유가증권의 실현손익과 평가손익간에 가치관련성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실현과 평가여부에 따른 회계정보 유용성 차이를 분석한 동일한 분야의 연구이기 때문이다.

Barth(1994)에서는 금융업에서 유가증권에 대한 공정가치와 역사적 원가의 차액은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유가증권에 대한 이 두 원가의 차액은 기업가치 설명에 있어 증분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송인만 외 2인(2000)의 연구에서는 1996년 말에 증권 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을 대상으로 유가증권 시가정보의 유용성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식사항에 보고된 유가증권 평가손익의 정보는 주가수준을 설명하였으며, 이러한 평가손익은 당기순이익에 추가적인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상철 외 2인(2002)의 연구에서는 유가증권의 실현손익인 처분손익과 미실현손익인 평가손익의 유용성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기유가증권의 경우 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의 주가배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투자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처분손익과 평가손익의 주가배수간 크기는 차별적으로 서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보고하였다.

조성표와 박기찬(1998)의 연구에서는 1996년 개정된 외화환산 회계에서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반영한 경우와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경우 투자자들의 반응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본조정으로 처리한 기업은 보고이익 보다 외화환산손익을 반영한 조정이익이 추가수익률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주식시장에서는 참여자들은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성과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강일과 김천환(2000)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1996말 결산시 외화환산 회계처리 방법(자본조정과 손익반영)의 선택에 대한 기업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된 외화환산손실이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은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하더라도 보고이익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회계처리 방식의 선택에 있어 현금흐름의 상태보다는 이익변동률을 고려하여 방식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Bazaz and Sentenety(2001)은 지분항목으로 계상한 미실현 외화환산손익에 대하여 투자자들의 반응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투자자들은 기업에서 미실현 외화환산손익을 당기손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지분항목으로 보고하더라도 이를 인식하여 주가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산이득 보다는 환산손실에 대하여 더 크게 반응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다음으로 K-IFRS 도입으로 인한 회계제도의 변경에 대해 그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박경호 외 3인(2009)의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으로 인한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 중 기능통화제도의 도입효과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해운기업의 재무제표를 기능통화적용 전과 후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능통화 적용 후의 손익계산서 상당기순이익의 패턴은 영업이익의 패턴과 유사해 졌다. 또한 자기자본의 연간 변화의 폭이 기능통화 적용 전 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기능통화회계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환율변동과 같은 영업외적인 효과가 줄어들게 되어 기업의 경제적 실질에 초점을 맞추어 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전영순과 하승현(2011)의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영업이익과 영업외손익을 구분표시 하지 않는 제도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IFRS 조기 도입한 회사 중 2009년에는 2개의 회사, 2010년에는 1개 회사가 영업이익을 공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영업이익 구분표시가 의무화되지 않으면 기업의 영업이익 정보가 이용가능하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호영 외 3인(2012)는 K-IFRS 도입으로 인한 영업이익 정보에 대한 비교가능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영업이익에 대한 재무제표 표시 및 산출방식이 기업마다 상이하며 영업이익에 대한 기업간 비교가능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타영업외 손익의 항목에 대해 충실한 주석 공시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백원선과 윤승준(2003)의 연구에서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

성이 차별성을 분석하여 이들 항목을 세분화하여 보고하는 현행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주가배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들 두 항목을 구분하는 것 보다 유사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앞선 선행연구들과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백원선과 윤승준(2003)의 연구에서는 단지 실현손익과 평가손익간 주가배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통해 이 두 항목을 통합하여 보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K-IFRS 도입으로 인해 실제 이 두 항목을 통합 보고한 집단의 가치관련성 검증을 통해 현행 통합보고 방식의 실효성을 검증하여 현 제도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3 가설 설정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 사업영역이 확대됨에 외환거래 관련손익이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증가되고 있다. 이러한 외환거래에 대해 현행 회계처리를 방식은 실현 손익과 평가 손익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실현된 손익인 외환차손익인 경우 거래가 완료되어 현금흐름을 동반하는 항목이지만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은 거래가 완료되지 않고 실현될 수 있는 손익 역시 환율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는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항목이다(김상철 외 2인, 2002; 조덕연, 2004). 따라서 평가손익 보다는 실현손익의 가치관련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환율변동에 따른 불확실성을 내포한 외화환산손익 보다는 거래의 완결로 인해 현금흐름이 수반되는 외환차손익의 가치관련성이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검증하고자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1:

외환차손익에 대한 가치관련성은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 보다 더 높을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재무보고의 목적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신뢰성과 목적적합성, 표현 충실성 등 질적 특성들을 갖추어 정보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환차손익은 실현주의 입장으로 거래로 인해 실제 현금흐름을 동반하는 신뢰성 있는 항목이다. 이와 반면에 외화환산손익은 발생주의에 의한 회계처리로 기말의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을 나타내는 목적적합성 항목이다. 따라서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은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 때문에 이를 구분하여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K-IFRS 도입으로 인해 실현손익 항목과 평가손익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고 통합하여 표시 하여도 된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국제회계기준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정보 전달 측면에서도 계정을 지나치게 세분화 하는 것 보다 적절한 통합 정보 제공이 오히려 효율성이 더 높을 수 있을 수 있다(백원선과 윤승준, 2003).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행 K-IFRS 도입으로 인한 외화관련 손익의 통합표시 제도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 통합보고로 인해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들이 훼손되었다면 이는 외화관련 손익에 대한 정보손실이 발생되어 가치관련성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와 반대로 통합표시제도로 인해 회계정보 전달의 효율성이 증가되어 외화관련 손익에 대한 정보손실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가치관련성은 변화하지 않거나 더 상승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가설 2:

통합표시 집단의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정보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Ⅲ. 연구모형 설계

3. 1 연구모형의 설정과 변수의 정의

본 연구는 먼저, 외환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실현손익인 외환차손익과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한다. 또한 기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인 이들 항목을 반드시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K-IFRS 도입으로 인해 이들 항목을 구분표시 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구분표시 하지 않고 통합된 하나의 회계수치로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되었을 때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으로는 Ohlson(1995)모형을 이용하고자 하며 이 모형은 할인배당모형에 순자산·순이익·배당간 순전성 관계(clean surplus relation)와 초과이익의 1차자기상관관계(first autocorrelation)에 관한 가정을 결합하여 기업의 지분가치를 순자산, 순이익 및 기타정보의 선형함수로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V_t = \{1-r\omega_1/(1+r-\omega_1)\} \cdot BV_{t-1} + \{1+\omega_1/(1+r-\omega_1)\} \cdot E_t - DIV_t + q \cdot O_t \quad \text{식(1)}$$

변수의 정의 :

V_t = t년말 지분가치

r = 3년 만기 회사채 평균유통수익률

ω_1 = 외화환산손익회계도입으로부터 추정된 이익지속성

BV_{t-1} = t-1년말 현재 주당순자산

E_t = t년도 순이익

DIV_t = t년도 배당금

O_t = t년도 초과이익 이외의 기타정보.

식(1)에 의하면 지속성이 증가할 때 순이익에 대한 주가배수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식시장이 효율적이라면 주식시장참여자들의 지분가치에 대한 평가는 순이익과 순자산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초과이익 이외의 기타정보(O)는 현실적으로 측정이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평균값이 0과 다를 경우 이를 무시한 채 모형을 추정하면 오차항간의 자기상관관계가 존재하는 등 계량경제학적 문제가 생기게 된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 초과이익 이외의 기타정보 대신에 절편과 오차항을 추가하였다(Myers, 1999).

선행연구에 따르면 순이익이 음(-)인 경우에는 순이익과 주가의 관계가 질적으로 다른 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Hayn, 1995; Collins et al., 1999) 이를 통제하기 하고자 음(-)의 순이익(NEG_E)을 포함시켰다.

또한 종속변수가 독립변수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특정연도, 산업의 경제적 환경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관측치간 횡단면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횡단면 및 시계열 상관관계로 인하여 추정회귀계수 및 그 표준오차가 불편적(unbiased)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연도별 더미변수(YR)와 시장(MARKET) 그리고 산업 더미변수(ID)를 포함시켰다.

이상의 통제변수를 포함시키고 t년말 지분가치(V)를 재무자료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시점인 t+1년 3월말 주가(P)로 대체하여 식 (1)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P_t = b_0 + b_1BV_{t-1} + b_2AE1_t + b_{31}FCT_t + b_4NEG_E_t + \sum_k b_{5k}YR_{kt} + \sum_i b_{6i}ID_{it} + e_t \quad (2a)$$

$$P_t = b_0 + b_1BV_{t-1} + b_2AE2_t + b_{32}FEX_t + b_4NEG_E_t + \sum_k b_{5k}YR_{kt} + \sum_i b_{6i}ID_{it} + e_t \quad (2b)$$

$$P_t = b_0 + b_1BV_{t-1} + b_2AE3_t + b_{33}FCTEX_t + b_4NEG_E_t + \sum_k b_{5k}YR_{kt} + \sum_i b_{6i}ID_{it} + e_t \quad (2c)$$

변수의 정의 :

P_t = t+1년도 3월말 주당 주가

BV_{t-1} = t-1년도 주당 장부가치

$AE1_t$ = t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외환차손익을 차감한 주당금액($E \pm FCT_{jt}$)

$AE2_t$ = t년도 당기순이익당기순이익에서 외화환산손익을 차감한 주당금액($E \pm FEX_{jt}$)

$AE3_t$ = t년도 당기순이익에서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모두 차감한 주당 금액($E \pm FCTEX_{jt}$)

FCT_t = t년도 주당 외환차손익

FEX_t = t년도 주당 외화환산손익

$FCTEX_t$ = t년도 주당 외화차이

NEG_E_t = t년도 E_t 가 음(-)이면 E_t , 그렇지 않으면 0

YR_{kt} =관측치가 k년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ID_{it} =관측치가 i년에 속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

식(2a)는 실현손익인 외환차손익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식(2b)는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한 모형식이다. 마지막으로 식(2c)는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을 모두 합한 외화차이의 회계정보 유용성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또한 각 모형의 수정된 이익들은 당기순이익에 모형에 따라 외화관련손익들을 조정하여 각각의 모형에 설정하였다.

만약, 외환거래의 증가로 인해 이와 관련된 손익들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또한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의 요인으로 작용된다면 이들의 회계수치는 회계정보로써 유용한 가치관련성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 손익의 가치관련성은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b_{31}, b_{32}, b_{33} > 0$).

$$P_t = b_0 + b_1BV_{t-1} + b_2AE3_t + b_{31}FCT_t + b_{32}FEX_t + b_4NEG_E_t + \sum_k b_{5k}YR_{kt} + \sum_i b_{6i}ID_{it} + e_t \quad \text{식(3)}$$

변수의 정의:

식(2)참조.

다음으로 식(3)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하고자 설정하였다. 즉, 회계정보 유용성이 실현손익(FCT)과 평가손익(FEX)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b_{31} 와 b_{32} 간 회귀계수 차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통합보고된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식(2) 그리고 식(3)을 검증하고자 한다. 통합 표시된 집단으로 인해 외화관련 손익에 대한 정보가 손실되었다면 이들 집단의 가치관련성을 하락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회계정보의 효율성이 오히려 증가되었다면 이들 집단의 가치관련성은 변화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였을 것이다.

3.2 표본선정

본 연구에는 먼저,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유가증권 시장의 기업의 감사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2014년도까지 외화관련 손익 항목의 구분 표시 여부와 금액을 조사하였다. 또한 분석한 필요한 추가적인 재무자료는 한국신용평가(주)의 KIS-VALUE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하였다.

다음으로 각 기업의 표본기업은 금융업에 속하지 않는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하되, 아래의 제약조건을 부여한다.

(1) 관리대상종목으로 편입된 적이 없을 것

- (2) 계속기업가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을 것
 (3) 실증분석에 필요한 모든 재무자료가 이용 가능할 것
 (4) 회귀식에 포함되는 모든 주요 변수가 극단치를 벗어나지 않을 것.
 이 요건은 극단치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 1〉 표본선정

기준	기업수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상장된 기업	6,389
금융업에 속한 산업이거나 재무자료가 없는 기업	(1,181)
상·하 극단치	(183)
K-IFRS 도입으로 인해 통합 표시 집단	148
총합	5,173

IV. 실증분석

4.1 기술통계

〈표 2〉 기술통계

구분(n=5,173)	평균	표준편차	중위수	1%	99%
P_t	27,308	56,605	8,290	400	264,500
BV_{t-1}	27,654	48,866	11,110	312	223,510
NE_t	1,781	4,707	537	-7,445	21,954
FCT_t	6.853	295.093	0.000	-871.859	885.967
FEX_t	2.941	312.414	0.000	-955.545	828.226
$FCTEX_t$	9.794	433.060	-0.006	-1,343.360	1,437.030

1) 변수의 정의 :

P_t = t+1년도 3월말 주당 주가

BV_{t-1} = t-1년도 주당 장부가치

NE_t = t년도 주당 당기순이익

FCT_t = t년도 주당 외환차손익

FEX_t = t년도 주당 외화환산손익

$FCTEX_t$ = t년도 주당 외환차이

〈표2〉는 주요변수에 대한 기술적 통계치를 나타낸 것이다. 전체 표본기업의 주가(P)와 장부가치(BV)의 평균(중위수)은 각각 27,308원(8,290원)과 27,654원(11,110원)으로 이들 변수의 중위수와 평균값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외화관련손익 변수들을 살펴보면 주당 외환차손익(FCT)의 평균(중위수)은 6.853원(0.000원)을 주당 외화환산손익(FEX)의 평균(중위수)은 2.941원(0.000원)을 보여 평가된 손익 보다는 실현된 손익이 더 높은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합인 외화차이(FCTEX)의 평균(중위수)은 9.794원(-0.006원)를 보였다.

4.2 상관관계

〈표 3〉 상관분석

변수	P_{t-1}	BV_{t-1}	NE_t	FCT_t	FEX_t
BV_{t-1}	0.667***				
NE_t	0.639***	0.547***			
FCT_t	0.023*	0.032**	0.061**		
FEX_t	0.084***	0.097***	0.094***	-0.045***	
$FCTEX_t$	0.090***	0.111***	0.129***	0.643***	0.719***

- 1) *, **, *** 는 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는 〈표2〉를 참조 .

위 〈표3〉는 각각 주요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주가(P)와 장부가치(BV)는 모두 변수와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가(P)와 외환거래 관련 변수들이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외환거래 손익 변수들의 가치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환차손익(FCT), 외화환산손익(FEX)은 외화차이(FCTEX)과 모두 유의한 양(+)의 상관성을 보이고 있지만 외환차손익(FCT)과 외화환산손익(FEX)은 상관관계는 음(-)의 상관성을 보여 각 기업들에서 실현손익이 높을수록 평가손익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추세분석

아래 〈그림 1〉은 기업들의 외화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각 연도별로 주당 평균 금액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각 주당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연도별 추세(2005년-2014년)



연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외환차손익	16.0	72.6	8.7	1.5	12.8	0.1	3.7	-25.0	-11.3	0.1
외화환산손익	47.2	70.2	-30.2	-114.2	22.0	11.7	-50.7	28.2	78.4	-34.2

먼저, 실현손익은 외환차손익은 2005년에는 주당 16원을 보였으며 이후 2011년 까지 계속 해서 순이익의 값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2012년과 2013년에는 순손실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2014년에는 순이익으로 회복하였다.

다음으로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은 2005년에는 47원을 보였으며 이후 70원으로 높은 이익의 값을 보였다가 세계 금융위기인 2007년과 2008년에는 매우 낮은 순손실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에는 순이익과 순손실을 반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 분석 결과 외환차손익은 모든 연도에서 비교적 순이익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익에 대한 연도별 증감의 폭도 작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화환산손익의 경우 순이익 또는 순손실이 무작위로 보여 지고 있고 이에 따라 각 연도별 이익의 변화 폭도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4.4 회귀분석

<표4> 외환관련 손익의 가치관련성 분석 결과

모형 1:

$$P_t = b_0 + b_1BV_{t-1} + b_2AE1_t + b_3FCT_t + b_4NEG_E_t + \sum_k b_{5k}YR_{kt} + \sum_i b_{6i}ID_{it} + e_t$$

모형 2:

$$P_t = b_0 + b_1BV_{t-1} + b_2AE2_t + b_3FEX_t + b_4NEG_E_t + \sum_k b_{5k}YR_{kt} + \sum_i b_{6i}ID_{it} + e_t$$

모형 3:

$$P_t = b_0 + b_1BV_{t-1} + b_2AE3_t + b_3FCTEX_t + b_4NEG_E_t + \sum_k b_{5k}YR_{kt} + \sum_i b_{6i}ID_{it} + e_t$$

모형 4:

$$P_t = b_0 + b_1BV_{t-1} + b_2AE3_t + b_3FCT_t + b_3FEX_t + b_4NEG_E_t + \sum_k b_{5k}YR_{kt} + \sum_i b_{6i}ID_{it} + e_t$$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2,346	4.00**	2,396	4.08***	2,364	4.03***	2,405	4.10***
BV _{t-1}	0.427	31.48***	0.424	31.25***	0.425	31.30***	0.424	31.24***
AE1 _t	5.682	37.53***						
AE2 _t			5.635	37.06***		37.29***		
AE3 _t					5.655		5.639	37.03***
FCT _t	5.567	5.48***					6.118	5.90***
FEX _t			3.940	5.69***			3.880	5.46***
FCTEX _t					4.611	8.63***		
NEG _t	-6.986	-16.60***	-6.837	-16.12***	-6.884	-16.27***	-6.840	-16.13***
연도, 산업 시장 더미	포함							
설명력	0.565		0.565		0.567		0.423	
차이분석 (FCT-FEX)			-				2.72*	

1) *, **, *** 는 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

P_t = t+1년도 3월말 주당 주가

BV_{t-1} = t-1년도 주당 장부가치

NE_t = t년도 주당 당기순이익

FCT_t = t년도 주당 외환차손익

FEX_t = t년도 주당 외화환산손익

$FCTEX_t$ = t년도 주당 외환차이

NEG_t = t년도 NE가 0 이상이면 0, 아니면 NE

<표5>에서는 외환관련 손익의 회계정보 유용성을 살펴보고자 구분표시 집단을 대상으로 외환차손익,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외화차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모형 1은 외환차손익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FCT의 회귀계수는 5.567을 보여 시장에서 외환차손익의 주가배수가 양(+)임을 알 수 있다.

모형 2에서는 평가손익인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로 FEX의 회귀계수가 3.940으로 역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모형 3에서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의 합이 외환차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FCTEX의 회귀계수 역시 4.611로 유의한 양(+)의 값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외환관련 손익의 주가 배수는 모두 유의한 양(+)의 값을 보여 모두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외 다른 변수들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모두 방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동일한 외화관련 손익이더라도 실현손익과 평가손익 여부에 따라 회계정보 유용성은 차별적일 수 있다. 이는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이 갖는 거래의 완료 유무와 회계정보

의 질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에 모형 4에서는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의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인지를 확인하고자 회귀계수의 차이를 검증하는 F-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FCT의 회귀계수는 6.118이며, FEX의 회귀계수는 3.880으로 모두 유의한 주가배수를 보였으나 이들 주가배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F=2.72$ 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시장 참여자들은 실현손익과 평가손익에 대해 그 가치관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평가손익 보다는 실현 손익을 더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앞선 추세 분석을 통해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규모가 각 연도별로 다르며 그 변화의 폭도 매우 다를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연도별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 규모와 변화의 폭에 따라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인지를 추가적으로 살펴보았다.

<표5> 각 연도별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 손익에 대한 가치관련성 검증 결과

모형 5:

$$P_t = b_0 + b_1 BV_{t-1} + b_2 AE3_t + b_{31} FCT_t + b_{32} FEX_t + b_4 NEG_E_t + \sum_i b_{5i} ID_{it} + e_t$$

구분	BV_{t-1}	NE_t	FCT_t	FEX_t	기타변수	수정-설명력
2005년	0.322***	3.738***	20.220*	17.366**	생략	0.551
2006년	0.295***	5.318***	8.366*	5.266*		0.672
2007년	0.317***	5.789***	52.613***	-48.382***		0.612
2008년	0.240***	3.024***	1.719***	-2.801***		0.622
2009년	0.124***	5.345***	8.379***	9.078		0.538
2010년	0.060*	6.443***	17.340*	17.370**		0.637
2011년	0.293***	7.210***	9.330*	0.317		0.665
2012년	0.498***	7.474***	28.054*	15.375**		0.674
2013년	0.353***	11.143***	27.947**	10.505*		0.645
2014년	0.461***	11.448***	30.218**	16.851**		0.641

1) *, **, *** 는 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 <표 4>참조

먼저, 외환차손익은 모든 연도에서 모두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를 보여 모두 유의한 주가배수를 보였다. 하지만 외화환산 손익의 경우 2007년과 2008년에는 모두 유의한 음(-)의 주가배수를 보였으며 2009년과 2011년에는 모두 유의하지 않는 주가배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추정하자면 앞선 설명대로 외환차손익의 경우 연도별 증감의 폭이 높지 않으며, 또한 대부분의 연도에서 양(+)의 평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연도에서 주가배수가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외화환산손익의 20007년과 2008년의 세계 금융위기 시기에는 매우 낮은 음(-)의 평균값을 보였으며 또한 각 연도별 증감의 폭이 매우 높기 때문에 모두 유의한 주가배수를 보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 <표 6>에서는 외화관련 손익을 통합으로 보고한 집단을 대상으로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 그리고 외화차이의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표 6> 통합보고 집단의 외환손익 관련 가치관련성 검증 결과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Intercept	11,857	2.55**	12,389	2.67***	11,948	2.59***	11,635	2.50***
BV _{t-1}	0.292	3.43***	0.284	3.29***	0.271	3.21***	0.281	3.27***
AE1 _t	8.720	5.93***						
AE2 _t			8.785	5.93***				
AE3 _t					8.398	5.64***	8.438	5.65***
FCT _t	19.038	1.91*					34.087	1.96*
FEX _t			6.030	0.59			27.529	1.54
FCTEX _t					31.325	1.86*		
NEG _t	-18.538	-5.08***	-18.322	-5.01***	-18.263	-5.04***	-18.446	-5.06***
연도, 산업 시장 더미 설명력	포함							
	0.422		0.418		0.425		0.423	

1) *, **, *** 는 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 <표4>참조.

<표 6>에서는 통합표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가치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모형 3에서 통합 보고된 FCTEX(31.325)는 유의한 주가배수를 보여 이러한 결과를 통해 외화관련 손익을 통합 보고한 경우에도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하락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통합보고로 인해 정보손실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모형 1에 FCT(19.038)는 유의한 주가배수를 보였으나, 모형 2에서 FEX(6.030)은 유의한 주가배수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모두의 주가배수를 검증한 모형 4에서 FCT만 유의한 가치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합보고 집단에서는 외환차손익의 가치관련성이 높으나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통합보고한 집단의 경우 직접적으로 그 규모를 알 수 있는 외화환산손익 보다는 계산과정을 통해 추정된 외환차손익이 더 높은 회계정보 유용성을 보였다. 이는 직접적으로 재무제표에 보고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에 의사결정에 중요하게 인식되는 항목이라면 회계정보 유용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즉, 정보의 전달 방식 보다는 참여자의 계정과목 중요도에 따라 회계정보 유용성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4.5 추가분석

본 연구의 추가분석에서는 회계정보 전달 방식에 따라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인지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회계정보 방식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하여 외환거래 관련 변수들의 가치관련성이 차별적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외환관련 손익을 통합 표시한 집단과 구분 표시한 집단간에 이들 변수들의 주가배수가 차별적인지를 살펴보고자 하며 이에 통합표시 집단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 및 연도, 시장이 동일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3배수를 선정하여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 통합표시 집단의 외환차이가치관련성 검증 결과: 대응표본을 이용

모형 6:

$$P_t = b_0 + b_1BV_{t-1} + b_2AE3_t + b_{31}FCT_t + b_{41}FCT_t \times DUMMY + b_5NEG_E_t + b_{6k}MARKET_t + \sum_k b_{7k}YR_{kt} + \sum_i b_{8i}ID_{it} + e_t$$

모형 7:

$$P_t = b_0 + b_1BV_{t-1} + b_2AE3_t + b_{32}FEX_t + b_{42}FEX_t \times DUMMY + b_5NEG_E_t + b_{6k}MARKET_t + \sum_k b_{7k}YR_{kt} + \sum_i b_{8i}ID_{it} + e_t$$

모형 8:

$$P_t = b_0 + b_1BV_{t-1} + b_2AE3_t + b_{33}FCTEX_t + b_{43}FCTEX_t \times DUMMY + b_5NEG_E_t + b_{6k}MARKET_t + \sum_k b_{7k}YR_{kt} + \sum_i b_{8i}ID_{it} + e_t$$

구분	모형 6		모형 7		모형 8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주요 변수	절편, BV _{t-1} , AE1, AE2, AE3 변수 생략					
FCT _t	24.645	6.33***				
FCT _t ×DUMMY	-25.021	-1.35				
FEX _t			41.167	2.54**		
FEX _t ×DUMMY			-35.350	-1.42		
FCTEX _t					24.298	6.63***
FCTEX _t ×DUMMY					-0.100	0.01
기타변수			NEG, 연도, 산업더미 포함			
설명력	0.731		0.717		0.732	

1) *, **, *** 는 계수가 0과 유의하게 다른지에 대한 양측검정시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변수의 정의

DUMMY = 외화관련 손익을 통합 표시하면 1, 아니면 0

$FCT_t \times DUMMY$ = 외화관련 손익의 통합표시 집단과 외환차손의 상호작용변수.

$FEX_t \times DUMMY$ = 외화관련 손익의 통합표시 집단과 외화환산손익의 상호작용변수.

$FCTEX_t \times DUMMY$ = 외화관련 손익의 통합표시 집단과 외화차이의 상호작용변수.

나머지 변수는 <표 4> 참조

<표 7>은 대응표본을 이용하여 구분표시 집단과 통합표시 집단의 외환관련 변수들의 추가배수를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FCT(24.645)$, $FEX(41.167)$, $FCTEX(24.298)$ 로 모두 유의한 양(+)의 추가배수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외환차손익에 대한 두 집단간 추가배수의 차이를 나타내는 $FCT_t \times DUMMY$ 의 회귀계수는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외화환산손익의 추가배수 차이를 나타내는 $FEX_t \times DUMMY$ 와 외환차이의 추가배수 차이를 나타내는 $FCTEX_t \times DUMMY$ 의 회귀계수 역시 모두 유의한 값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구분표시 집단과 통합표시 집단의 외환관련 손익 정보에 관한 추가배수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보고 방식에 따라서도 정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행 외화관련 손익에 대해 통합표시 제도가 정보제공의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지지해 주고 있다.

V. 결론

우리나라 기업들의 해외사업 확장으로 인해 외화거래가 점점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외화거래로 발생된 이익은 기업성과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외화관련 손익에 대한 회계정보는 기업 이해관계자들에게 투자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기존 회계규정에 의하면 외화관련 손익의 경우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을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으나 2011년 K-IFRS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K-IFRS 도입으로 인한 외화관련 손익의 통합표시가 가치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현행 통합표시 제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 첫째,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의 가치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외환차손익과 외화환산손익은 외환차손익은 서로 다른 추가배수를 보였으면 실현손익인 외환차손익이 통계적으로 더 높은 가치관련성을 보였다.

둘째, 외환관련 손익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 보고한 집단의 외화차이(외환차손과 환산손익의 합)는 유의한 가치관련성을 보여 통합보고 집단에서 회계 정보손실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두 항목을 구분표시한 집단과 통합 보고 집단 간의 외화거래 정보에 대한 가치관련성을 비교한 결과 두 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회계정보 제공 측면에서도 전달방식에 따라 회계정보 유용성이 차별적인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과거 회계기준에서는 회계정보 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과 미실현손익을 구분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 이러한 구분표시 제도의 정보제공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보고 방식으로 전환하였을 경우에도 외화차이에 대한 정보손실을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재무제표상 직접적으로 보고되지 않는 외환차손익이 재무제표상 직접보고 되어진 외화환산손익 보다 더 높은 가치관련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회계정보의 전달 방식 보다는 계정항목의 중요성에 따라 차별적인 가치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으며 현행 외화관련 손익에 대해 통합표시 제도의 타당성을 지지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 김병호. 2003. 장기외화부채로부터의 환산손익에 대한 회계처리 연구: 외항해운기업을 참조하여. 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127-152.
- 김상철 · 백원선 · 이효익. 2002. 유가증권 평가손익과 처분손익의 주가관련성. 회계학 연구. (제27권 제2호) : 117-138.
- 박경호 · 임승연 · 김칠봉 · 이창우. 2009. K-IFRS(한국채택국제 회계기준)에 근거한 기능통화 회계제도의 도입효과: 외항해운기업 사례. 회계저널. (제18권 제1호): 87-112
- 변혜영. 2010.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과 외화환산 관련 회계처리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제6권 제1호) :265-284.
- 백원선 · 윤승준. 2003. 외화환산정보의 가치 관련성. 회계와 감사연구. 39: 75-92.
- 송일만 · 박철우 · 양동훈. 2000. 유가증권 시가정보의 유용성에 대한 실증연구. 회계학 연구. (제25권 제3호): 1-24.
- 유용근·문보영·최은실. 2013. 영업이익 산정방식에 따른 영업이익의 가치관련성 비교. 회계저널. (제22권 제2호): 1-21
- 이강일 · 김친환. 2000. 외화환산손실 회계처리방법의 선택 동기: 법인세 효과를 중심으로. 경영연구. (15권 1호): 99-119.
- 이호영·강민정·장금주·이홍섭. 2012.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재무정보의 비교가능성 실태분석. 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307-342.
- 전영순 · 하승현. 2011. K-IFRS를 조기 도입한 기업의 영업이익 구분 표시 및 영업이익 산출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제20권 제2호): 239-275.
- 조성표 · 박기찬. 2003. 외화환산손익에 대한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과 자본시장의 반응. 회계학연구. (제28권 제4호): 29-60.
- Barth, M. E., 1994. Fair value accounting: Evidence from investment securities and the market valuation of banks. *The Accounting review* 69: 1-25.
- Barth, M. E., W. R. Landsman, and M. H. Lang. 2008.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Quality.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46(3): 467-498.
- Bazaz, Mohammad S. and David L Sentency. 2001. Value Relevance of Unrealized Foreign Currency Translation Gains and Losses. *Mid-American Journal of Business* 16: 55-62.
- Byun, H. Y. 2010. Accounting for the effects of changes in foreign exchange rates *Journal of International Trade & Commerce* 6(1):2 65-284 [printed in Korean]
- Collins, D. W., M. Pincus, and H. Xie. 1999. Equity valuation and negative earnings: The role of book value of equity. *The Accounting Review* 74 (January): 29-61.

- Hayn, C. 1995. The information content of losse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20: 125-153.
- Myers, J. 1999. Implementing residual income valuation with linear information dynamics. *Accounting Review* 74: 1-28.
- Ohlson, J. 1995. Earnings, book values, and dividends in equity valuation.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1: 661-687.